

동서화합 · 나라평안 한마음 발원

'국난극복 참회대법회' 회향

제8차 목포 보현정사서 ... 5천여명 성황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법륜종이 주관한 제8차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가 11월29일 목포 보현정사에서 지역화합을 기원하며 회향했다.

영·호남 충청 경기 등 전국에서 사부대중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단협의회 회장 직대 인곡 태고종총무원장은 회향사를 통해 이 법회의 공덕으로 국난이 극복되어 인락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했다.

이에 앞서 법륜종이사장 정각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이 대법회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동서화합에 탄탄한 주춧돌이

되어 국난을 이겨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웅스님(성전암 조실)의 법어, 한화갑 국민회의 총무의 대통령메시지 낭독, 전두환 前대통령·서석재 국회의원회장·이완식 전남도회의회장·권이담 목포시장·김진영 영주시장의 기원사가 있었다.

전두환 前대통령은 기원사를 통해 "구성원이 서로 대립하고 분열된 사회는 그러한 상황이 곧 위기가 되는 것이고, 그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난국에 처했다 하더라도 모두가 합심하고 협력하면 타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법륜종이사장 정각스님, 성전암 조실 철웅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법륜종 총장 김갑스님.

대통령 메시지 전문

국가경제의 회복과 국민대화를 기원하기 위해 '국난극복 참회대법회'에 모인 불교계 지도자와 불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 불교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고난받는 국민을 이끌고 나라를 지켰으며, 온 국민이 팔뚝을 이룩한 국가 중흥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온 한해동안 전국 각지에서 2천만 불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난극복을 기원하는 참회대법회를 열어온 것은, 바로 이러한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초에서 시작한 목포에 이르기까지 총 8차에 걸친 대법회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참회하고 각성함으로써, 국민적 역량을 재결집하고 국민의 화합을 이루어내는데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연한 국난극복과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약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대화와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불교계가 앞장서서 대비해주시는 부처님의 인력으로 국가적 과제인 동서화합의 물꼬를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 국민 모두를 대신해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회복의 빛이 비치고 있는 것도, 불교계 여러분의 이같은 지극한 기원이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좀더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부처님의 자비심에 힘입어 국민대화를 이룸으로써,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도약과 민족통일을 앞당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불교계지도자와 불자 여러분이 민족의 대화합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가 잘 회향되는데 대해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 11월29일

대통령 김대중

보현정사법회 이모저모

교계·정계인사와 오찬

◇전두환 前대통령은 오후 1시경 보현정사에 도착, 교계 지도자 정치인사 등 50여명과 함께 극락전에서 오찬. 오찬을 마치고 스님들과 환담을 나누다 기자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오랜만에 목포에 오니 반갑고 기분이 좋다"며 "국난극복 참회대법회의 회향법회에 참석해 더욱 의미가 깊다"고 피력. 이어 "날씨가 너무 좋아 불교계가 정성을 다해 기도한 덕분이다"며 "나라도 잘될 것 같다"고 말하고 "이것을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이토록 스님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가피도 클 것이다"고 교리적인 설명을 덧붙이기도.

초대형 괘불 법당 장엄

◇법회장은 관음전 앞에 야외 단상을 1m 높이를 15등을 새로 조성하고, 초대형 괘불을 걸고 법당을 꾸며 장엄을 더했다. 국난극복 참회대법회의 총회장법회라 그 동안의 법회 가운데 가장 많은 내빈의 참석으로 주최측은 50명이 넘는 단상위 자리 배치에 고심하는 모습.

육법공양의식 '눈길'

◇이날 육법공양의식을 행사후원단체 장들이 올려 눈길을 끌었다.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스님의 등(燈)공양을 시작으로 국회회의연등회를 대표해 배종무위원이 황룡, 지민련불자회 박철언회장이 차(茶)를,

현대불교신문 김광삼사장이 쌀을, 목포해안대 정명선총장이 과일을, 보현정사 연화자신도회장이 꽃공양을 올렸다.

자매시 영주불자 동참

◇지역화합의 범화위자를 살려 목포시와 자매시인 영주시를 대표해 기원사를 한 김진영 영주시장은 "오늘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주에서 불자 5백여명과 새벽부터 8시간을 달려왔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연설도중 박수 두 차례

◇법회진행도 질서정연했는데 특히 사회자 주문없이 터진 '자발적인 박수'가 2번이었다. 한화갑 국민회의 총무가 남쪽한 대통령 메시지에서 "불교계에 감사한다"는 대목에서 박수가 터졌고, 또 한번은 박철언 지민련불자회장이 발원문을 마치자 마차 박수가 쏟아진 것.

기자 1백여명 취재 열기

◇전두환 前대통령의 사면복권이후 첫 목포방문이 갖는 상징성으로 취재열기 또한 법회열기만큼 대단. 교계언론을 비롯해 중앙·지방언론까지 총망라된 취재진들만 1백여명을 웃돌았다.

1배 1차 사경 '감동'

◇이런 법회는 호국신앙의 근본경이라 할 수 있는 <인왕호국만아비리밀경>을 5천여 동참 전 대중에 합동으로 사경해 총 5경을 완상시켰다. 법당등 경내 곳곳에는 사경하는 불자들이 붐볐고 특히 1차배하며 사경하는 신도들도 보여 감동의 시선을 모았다.



◇전두환 前대통령(오른쪽 끝)을 비롯 정·재계 인사와 지역기관장이 대거 동참했다.



◇플래카드를 들고 동참한 부산불자들.



◇인왕호국만아비리밀경을 사경하는 불자들.



◇전국에서 모인 5천여 불자들이 뒤덮인 보현정사.

사진으로 보는 '국난극복참회 대법회'

전국 순회 8회 봉행 연인원 10만명 동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7개 종단이 주관해 8차에 걸쳐 봉행한 '국난극복 참회 대법회'가 연인원 10만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11월 29일 회향했다.

김원도 속초에서 시작해 전남 목포까지 국난극복의 출발을 참회에 두고 불자들의 기원을 모아 국민에게까지 확산시킨 이 법회는 지역 화합의 문을 열면서 국민화합에 큰 울림을 주었다.

국난극복 참회대법회의 그 간절한 정진과 기원을 사진으로 본다. <편집자 주>

글=위영란 기자 (yryul@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buddhapia.com)



◇1차 국민화합을 기원 조계종 신홍사법회(4월5일).



◇2차 피서현정실천 철야참선정진 조계종 수덕사 법회(5월25~26일).



◇3차 동채대비 구원 철야관음정진 천태종 관문사법회(7월5일).



◇4차 대청의 영산대저 관음종 대전역스포법회(7월10일).



◇5차 진호국가 기원 송지종 정각사법회(9월22~23일).



◇6차 민족통일 발원 철야 올마니메출 정진 진각종 출신원법회(10월15~16일).



◇7차 대청의 수계 연비 태고종 선암사법회(11월15~16일).



◇8차 지역화합기원 철야3천배 법륜종 목포 보현정사법회(11월 28~29일).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에 성원해 주신 불자 사부대중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6.25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IMF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참회 대법회'를 지난 4월5일 입재한이후 전국을 순회하며 봉행해, 11월29일 원만히 회향했습니다.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를 큰 발원으로 7개 종단이 주관하여 합동법회로 8차에 걸쳐 봉행하면서, 지난날 우리들의 모든 업장을 진심으로 참회하며 나라경제살리기에 앞장서 이 시대 호국불교를 실천한 것입니다.

나아가 국민들에게도 국난극복의 의지를 확산시켰으며 이 법회의 공덕으로

바른 사일내 국민 대화합 속에서 나라안정을 찾을 것임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온 한해동안 본 법회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국민회의 연등회, 지민련 불자회, 한나라당 불자회,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 그리고 문화관광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본 법회에 참석해주신 스님들을 비롯한 각계 지도자들과 불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기 2542년 11월 29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직무대행 홍인곡

태고종 총무원장 홍인곡
총지종 총무원장 송지화

천태종 총무원장 전운덕
법륜종 재단이사장 석정각

조계종 신홍사 주지 김도후
조계종 수덕사 주지 김법장
진각종 통리원장 김성초
관음종 총무원장 이홍파